

2023. 3.

2023년 2/4분기

김해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김해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김해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전망을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환경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기동향과 정부의 경제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3. 2. 21(화) ~ 3. 7(화) (휴일제외 10일간)
- 분석대상 : 98개 응답기업

(단위 : 개, %)

	기업규모		수출비중	
	50인 이상	50인 미만	수출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기업 (수출 50% 미만)
응답기업	28	70	31	67
응답비중	28.6	71.4	31.6	68.4

□ 조사내용

- 기업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실적 및 전망
-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목표
-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
-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경제와 당사의 경영실적에 미칠 영향
- 대중국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

□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 기업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호전예상” 기업수} - \text{“악화예상” 기업수}}{\text{전체 응답기업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 과 ‘악화’ 로 응답한 기업 수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 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 로 응답한 기업이 많음

2 요약

□ 현황분석

○ 2023년 2분기 전망 ‘85.7’ , 2023년 1분기 실적 ‘71.4’

- 김해지역 2023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BSI는 85.7로 전년도 동기 전망(77.9) 대비 7.8p 증가하였고 직전 2023년 1분기 전망(76.8) 대비 8.9p 증가함.
-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액 목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소폭 하향(10% 이내)(33.7%)’ , 지난해 대비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지난해 수준(34.7%)’ 으로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음.
-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32.5%)’ , ‘물가·금리인상(31.4%)’ ,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5.0%)’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는 ‘부작용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됨(52.0%)’ , 중국의 리오프닝이 당사의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영향 없음(59.2%)’ 으로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음.
-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으로는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 증가(42.4%)’ ,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40.3%)’ 으로 대다수 기업이 응답함.
- 대중국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현재 수준 유지(73.5%)’ 로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32.7%)’ ,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28.8%)’ ,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1.5%)’ 순으로 응답하였음.

3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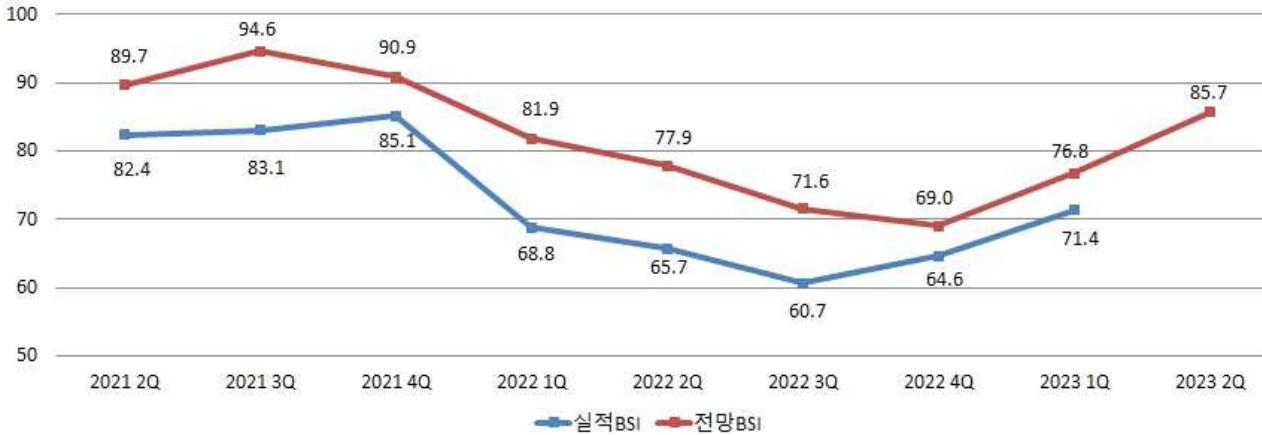
□ 김해 제조업 경기전망 및 실적 BSI

- 2023. 2. 21 ~ 3. 7(휴일제외 10일간) 동안 김해지역 98개 기업에 대하여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표를 취합·분석한 결과, 김해지역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BSI는 기준치에 밀린 85.7으로 전년도 동기 전망(77.9) 대비 7.8p 증가, 직전 2023년 1분기 전망(76.8) 대비 8.9p 증가한 결과로 나타남.
- 2022년 4분기 BSI 대비 2023년 1분기 실적은 기준치를 넘지 못한 71.4로 조사되었음. 이는 지난 분기 조사되었던 2023년 1분기 전망(76.8) 보다 5.4p 낮은 수치임.
- 2023년 2분기 전망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장·공장가동(91.8)’, ‘설비투자(86.7)’, ‘체감경기(85.7)’, ‘매출액(84.7)’, ‘공급망 안정성(83.7)’, ‘영업이익(75.5)’ 으로 모두 기준치를 밀린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



< 김해지역 제조업 실적 및 전망 체감경기(BSI) 추이 >



□ 기업규모별, 수출비중별 실적 및 전망

- 2023년 2분기 경기전망 BSI를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78.6)’ 과, ‘50인 이상 기업(103.6)’ 으로 나타났고, 2022년 4분기 BSI 대비 2023년 1분기 실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7.1)’ 과 ‘50인 이상 기업(82.1)’ 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수출비중에 따른 2023년 2분기 경기전망 BSI는 ‘내수기업(89.6)’ 과 ‘수출기업(77.4)’ 으로 나타났고, 2022년 4분기 BSI 대비 2023년 1분기 실적은 ‘내수기업(73.1)’ 과 ‘수출기업(67.7)’ 으로 조사됨.

< 기업규모별 실적 및 전망 BSI >

항목	분류	기업규모			
		50인 미만		50인 이상	
		1분기 실적	2분기 전망	1분기 실적	2분기 전망
체감경기		67.1	78.6	82.1	103.6
매출액		65.7	74.3	89.3	110.7
영업이익		52.9	62.9	82.1	107.1
설비투자		75.7	85.7	82.1	89.3
공급망 안정성		65.7	74.3	100.0	107.1
사업장·공장가동		80.0	82.9	103.6	114.3

〈 수출비중별 실적 및 전망 BSI 〉

항목	분류	수출비중			
		내수기업(50% 미만)		수출기업(50% 이상)	
		1분기 실적	2분기 전망	1분기 실적	2분기 전망
체감경기		73.1	89.6	67.7	77.4
매출액		76.1	88.1	64.5	77.4
영업이익		70.1	80.6	41.9	64.5
설비투자		74.6	89.6	83.9	80.6
공급망 안정성		79.1	80.6	67.7	90.3
사업장·공장가동		94.0	97.0	71.0	80.6

□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목표

○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실적 목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

- ① 크게 하향(3.1%)
- ② 소폭 하향(10% 이내)(33.7%)
- ③ 지난해 수준(32.6%)
- ④ 소폭 상향(10% 이내)(22.4%)
- ⑤ 크게 상향(8.2%)으로 응답하였으며,

○ 지난해 대비 올해 영업이익 목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

- ① 크게 하향(6.1%)
- ② 소폭 하향(10% 이내)(31.7%)
- ③ 지난해 수준(34.7%)
- ④ 소폭 상향(10% 이내)(21.4%)
- ⑤ 크게 상향(6.1%)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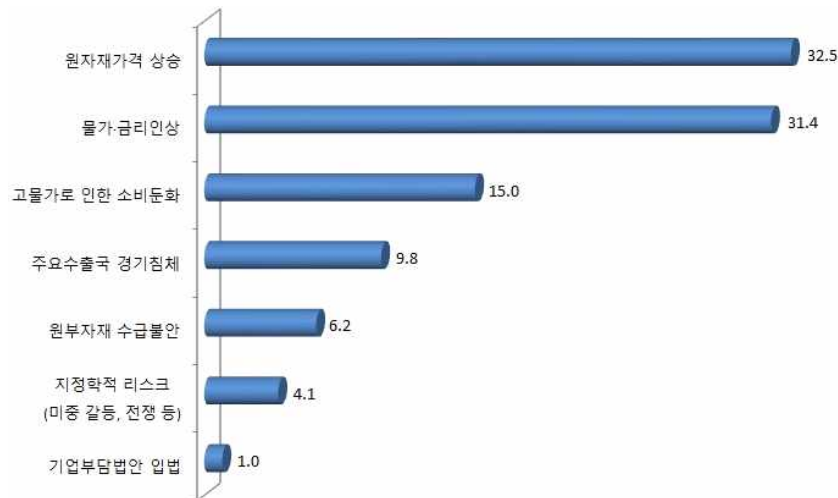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

○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 ① 원자재가격 상승(32.5%)
- ② 물가·금리인상(31.4%)
- ③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5.0%)
- ④ 주요수출국 경기침체(9.8%)
- ⑤ 원부자재 수급불안(6.2%)
- ⑥ 지정학적 리스크(미중 갈등, 전쟁 등)(4.1%)
- ⑦ 기업부담법안 입법(1.0%) 순으로 응답함.

<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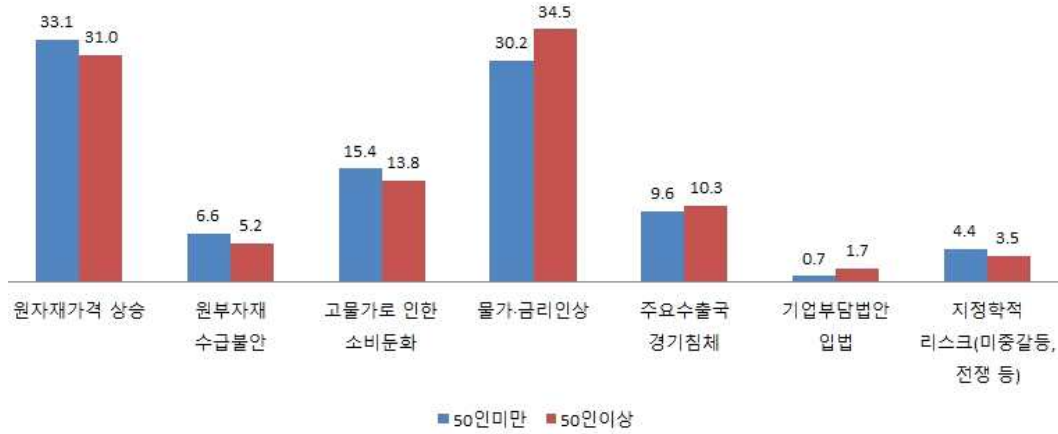
(단위 : %)



-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33.1%)’, ‘물가·금리인상(30.2%)’,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5.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50인 이상 기업’은 ‘물가·금리인상(34.5%)’, ‘원자재가격 상승(31.0%)’,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3.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수출비중별 분석 결과, ‘수출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28.4%)’, ‘물가·금리인상(28.4%)’,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20.9%)’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내수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34.6%)’, ‘물가·금리인상(33.1%)’,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1.8%)’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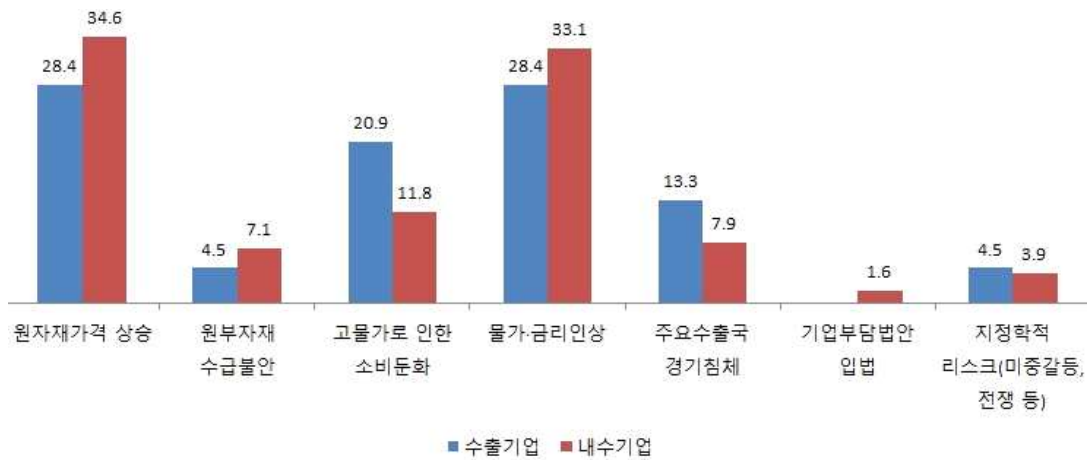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분석결과 >

(단위 : %)



< 수출비중별 분석결과 >

(단위 : %)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경제와 당사의 경영실적에 미칠 영향

○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 ① 큰도움이 됨(6.1%)
- ② 부작용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됨(52.0%)
- ③ 영향 없음(32.7%)
- ④ 도움되지만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더 큼(7.2%)
- ⑤ 부작용이 매우 클 것(2.0%) 으로 응답하였으며,

○ 중국의 리오프닝이 당사의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 ① 긍정적 효과 있을 것(22.4%)
- ② 이미 긍정적 효과 발생(10.2%)
- ③ 영향 없음(59.2%)
- ④ 부정적 효과 있을 것(8.2%)
- ⑤ 이미 부정적 효과 발생(0%) 으로 응답함.

○ ‘① 긍정적 효과 있을 것(22.4%)’ 또는 ‘② 이미 긍정적 효과 발생(10.2%)’ 으로 답한 경우,

-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 ① 중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42.4%)
- ② 중국산 부품소재 조달로 공급망 안정(36.4%)
- ③ 중국진출기업 가동 정상화(9.1%)
- ④ 물류차질 완화(9.1%)
- ⑤ 기타(3.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 기타 : 글로벌 경제 활성화

○ ‘③ 영향 없음(59.2%)’ , ‘ ④ 부정적 효과 있을 것(8.2%)’ 으로 답한 경우,

-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 ①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40.3%)
- ②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 크지 않을 것(37.3%)
- ③ 기타(17.9%)

※ 기타 : 중국경기 침체, 원부자재 공급지연으로 생산량 감소 등

- ④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4.5%)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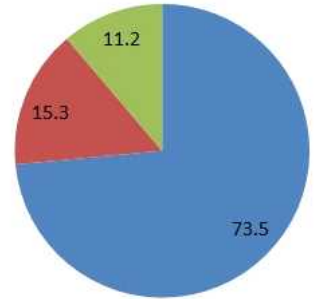
□ 대중국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 대중국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 ① 현재 수준 유지(73.5%)
- ② 계속 늘려갈 예정(15.3%)
- ③ 점차 줄여갈 예정(11.2%) 순으로 응답함.

< 대중국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
(단위 : %)



■ 현재 수준 유지 ■ 계속 늘려갈 예정
■ 점차 줄여갈 예정

□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

○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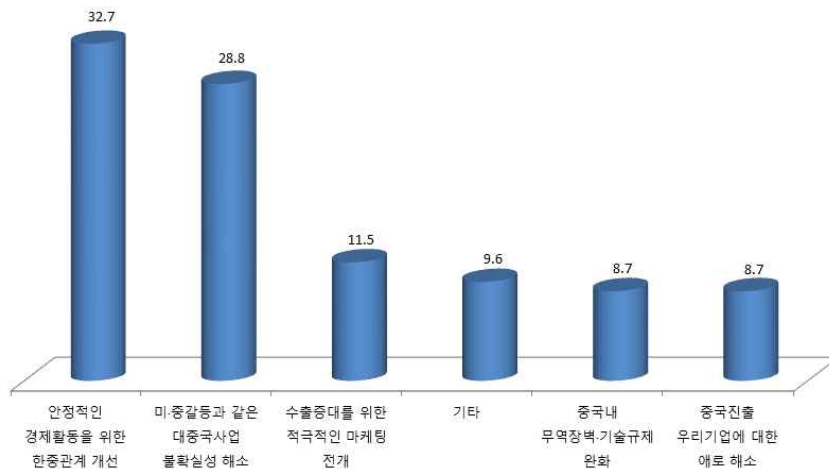
- 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32.7%)
- ②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28.8%)
- ③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1.5%)
- ④ 기타(9.6%)

※ 기타 : 시장 활성화, 국내 원가 상승요인 줄이기 등

- ⑤ 중국내 무역장벽·기술규제 완화(8.7%)
- ⑥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8.7%) 순으로 응답함.

<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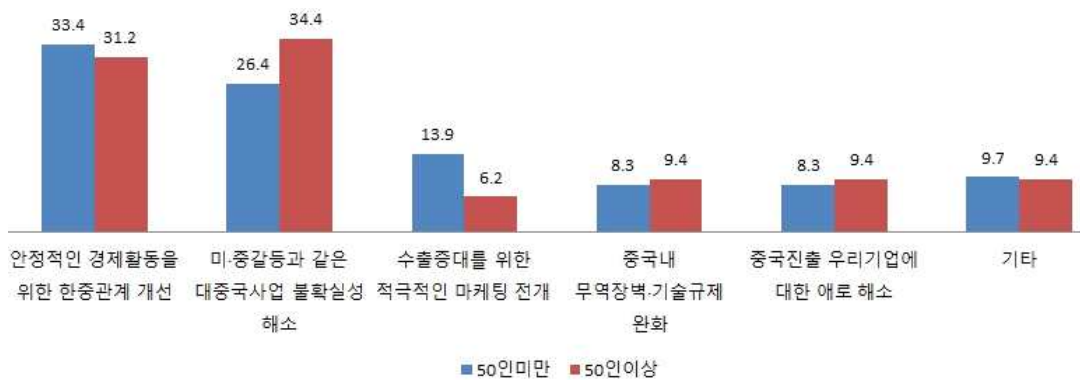
(단위 : %)



-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33.4%)',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26.4%)',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3.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50인 이상 기업'은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34.4%)',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31.2%)'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수출비중별 분석 결과, '수출기업'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30.6%)',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27.7%)',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3.9%)'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내수기업'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33.8%)',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29.3%)', '기타(11.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기업규모별 분석결과 >

(단위 : %)



< 수출비중별 분석결과 >

(단위 : %)



-끝-